



## 박소현의 섹.시.토.크

유난히 간지럼을 잘 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상대가 내게 간지럼을 태우려 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몸을 움츠리며 어쩔 줄 몰라 한다. 옆구리에 손가락만 뚝 찔렸을 뿐인데도 자자 러진다. 몸이 간지럼을 탈 준비, 웃을 준비를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섹스도 비슷하다. 오르가슴을 쉽게 느끼는 사람, 빨리 흥분에 도달하는 사람은 섹스를 하기 전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몸이 일찍 달아오른다. 몸이 흥분할 준비, 즐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만난 선배언니는 20대 중반에 결혼해 벌써 결혼 십년차에 이르렀다.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과의 사이도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런 그녀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오르가슴을 느껴보지 못했단다. 그저 좋다. 혹은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만 가져봤을 뿐, 남들이 흔히 말하는 별이 보이네, 숨이 끌때 넘어가네, 정신이 아득해지네, 따위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남편은 첫 남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가 애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아니, 남편이 전에 만났던 애인들과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다만 평균 정도의 크기와 지구력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오르 가슴을 느껴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언니가 심각한 불감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혹시 동성애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와 함께 꽤나 열심히 추론을 해 나가던 나는 뜻밖의 단서 하나를 발견



했다. 선배언니의 또 다른 고백이 이어진 덕분이었다.

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그 전의 애인들도 포함해서)에게 먼저 섹스를 하자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매번 남편이 하자는 신호를 보내와야 섹스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욕구가 없었나고 하면 그건 아니었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남편에게 먼저 신호를 보낼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밝힌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남편에 의해 마지막으로 섹스에 입하는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캐릭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캐

##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어?”

그럼 오늘은 언니가 들이대 봐”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르가슴은 때 논 당상이다

릭터를 크게 나누면 대략 수동적인 여자와 적극적인 여자로 나누어진다. 처음부터 수동적인 여자의 캐릭터를 맡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 ‘당신 왜 이래?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당신 바람났어?’ 등의 굽육적인 질문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한 캐릭터에서 벗져나오기

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섹스에는 별로 관심 없는 여자, 밝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여자라는 캐릭터가 부과된 뒤로 십년을 죽고 캐릭터만 유지해 왔었다.

문제는 이러한 캐릭터가 섹스의 완성도 혹은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불감증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내 문제이듯이, 언니가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언니 안에 있었다. 내가 간지럼을 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순이 아무리 무뎌도 자지러지기 마련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흥분할 준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누구와 섹스를 하더라도 오르가슴은 때 논 당상에 가깝다. 그리고 적극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오랜 공을 들여 나를 흥분시켜 놓아야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발휘되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먼저 하자고 제안하고 덤비는 여자들은 대부분 누구보다 오르가슴을 쟁취하는 것에 능한 이들일 것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지만 여전히 섹스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여자가 더 많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으면 나는 선배언니에게 누누이 강조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어? 그럼 오늘은 언니가 먼저 들이대 봐.” (연예칼럼니스트)

## 검색결정 키워드

## 검색

## 모델 선우선 ‘장동건의 여인’으로 떴다

TV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인기가 종영 뒤에도 식을 줄 모른다.

5일 24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결말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은 “못본걸로 할테니 제발 다시 좀 부탁”, “부상을 입은 스텝들이 완전히 치료를 끝난 후 다시 감독관 DVD를 위해 제대로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완성도 있는 결말을 내달라”는 등 다양한 댓글을 남기고 있다.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수능 성적이 7일 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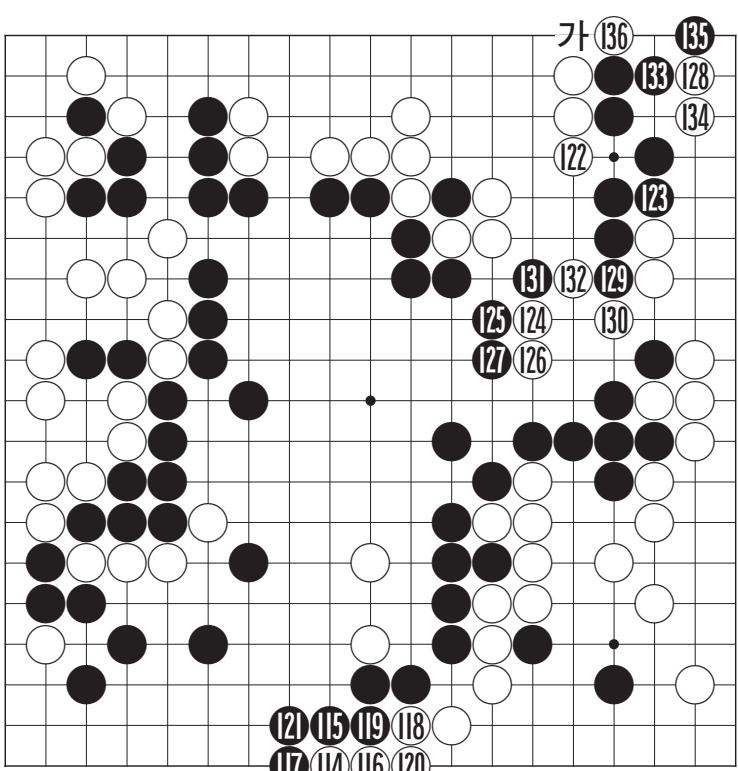
부터 수험생 개개인에게 통지된다. 소식도 집중 클릭 세례를 받으며 검색이 상위권에 올랐다. 올해 성적표는 영역별 등급(1~9)만 표시된다.

모델 선우선(27)도 최근 청정원의 새 광고 모델로 낙점, 텁스타 장동건(35)과 함께 CF를 찍으면서 네이션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장동건이 CF에서 “정원아 나랑 결혼해 줄래?”라는 대사를 하면서 ‘장동건의 여인’으로까지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수 박진영의 타이틀 곡 ‘나가 사는 그집’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김혜수.



제188회 전국체전

여성 일반부  
결승전

마지막 관문

7보(114~136)

白 이수빈 5단  
(경기도)  
黑 조경진 5단  
(경기도)

이외 배우 김혜수(37)가 최근 6년만에 가수로 컴백한 박진영(35)의 타이틀곡 ‘나가 사는 그집’의 뮤직비디오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소식도 화제를 모았다.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에 꼬짜 출연한 배우 김태희(27), 최근 ‘신지홈메이드’라는 식품회사를 설립하고 CEO로 변신한 혼성 그룹 코요테의 신지(26)도 검색어에 올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현재의 형세는 흑이 반면 15집 정도의 차이로 리드하고 있다. 과연 이 수반 5단 희망대로 역전의 기회가 찾을 것인가.

흑 ▲가 방식이 빛어낸 수로 역전의 단초를 제공한 수였다. 이 수로는 당연히 하번 118에 막아야 했다. 이 곳은 역끌내기 7집 짜리로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자리였다. 거꾸로 백 114로 달려가자 짐차이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정도로는 역전을 꿈꿀 수 없다.

백 124, 126 때 흑이 127로 받아준 수가 또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수로는 상변 ‘가’에 젖혀 이어

야 했다. 이곳은 서로 선수되는 곳으로 양선수 4집짜리. 이곳은 절대 선수 이기도 했다.

조경진 5단 방식을 해집고 이수빈 5단 드디어 128로 치중하여 최후의 승부수를 날린다. 그리고 보면 이수빈 5단 백 124를 둘 때부터 이곳에 치중하는 노립수를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귀의 사활은 이 모양만 알면 1급 인정된다는 유명한 ‘뒷박형’으로 대단히 복잡한 사활문제다. 조경진 5단 마지막 관문을 넘겨놓고 바짝 긴장된 표정으로 수읽기에 몰두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비록해설위원>

## 바둑 소식

목진석, 연간 최다승 보인다

목진석 9단이 연간 최다승 기록 수립에 2승을 남겼다.

목 9단은 6일 열린 제3기 원의杯 10단전 8강전에서 이정우 6단을 181수 끝에 흑 불계로 제압, 올해 89승을 달성함으로써 연간 최다승 (90승) 기록에 1승차로 다가섰다.

연간 최다승 기록은 지난 93년 이창호 9단이 수립한 기록으로 14년 동안 깨지지 않는 금지탑으로 남아있다.

목 9단은 10일 열리는 마스터스에서 1승을 추가할 경우 연간 최다승 타이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그는 지난달 30일 농심신라면배 9국에서 지난 89년 이창호 9단이 세웠던 연간 최다대국 (111국) 기록을 18년 만에 갈아치웠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7일(음 10월 28일 乙亥)



36년생 화운의 발전이 있다. 48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변화를 가져온다. 60년생 암중모색을 하니 쉽지는 않다. 72년생 불연과 불협화면이 있다. 74년생 운수의 혼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되 마라. 행운의 숫자 : 14, 28



37년생 어부지리는 있다. 49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 해야 행하라. 61년생 의외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73년생 불연이며 진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85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록소록 살아난다. 행운의 숫자 : 24, 44



38년생 높은 힘을 놓고 가족을 살펴보라. 50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아내의 건강을 살펴보라. 62년생 재물이 전쟁으로 일어나거나 내내 있다. 74년생 자기 일을 조심하라. 벌어놓은 신뢰가 무너질까 걱정이다. 행운의 숫자 : 21, 32



39년생 구설이 따르며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51년생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63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틀림이 없으리라. 75년생 일 거수 일 투쟁을 조심하고 마음 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8, 35



40년생 같은 이들에 따라 생기나 중증의 마음을 가져라. 64년생 남편과의 불연과 불협화면이 나타나니 본인의 잘못이다. 76년생 육사원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6, 17



41년생 순례에 향해하는 경이다. 5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65년생 기력이 쇠퇴하니 평정을 살펴보라. 77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으니 식솔은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21, 43



42년생 일고는 있으나 좋은 날은 멀지 않다. 54년생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 주변과 어울려라. 66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잊지 마라. 78년생 자신 있게 출전하라. 행운의 숫자 : 11, 41



43년생 처음 가는 길이나 살펴보니 행동해야 한다. 56년생 지인의 혼조가 있다. 67년생 순풍에 향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79년생 순풍과 역풍이 같이한다. 행운의 숫자 : 20, 38



44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56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쁨이 마련된다. 68년생 불연이며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하니 부부간 인생을 삼가야 한다. 80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경쟁도 우려된다. 행운의 숫자 : 02, 37



45년생 차기 편에 생기나 생길 수 있다. 57년생 절대 순수사람과 신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세히 살펴라. 69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81년생 일승복과는 별거지상사다. 삼십 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3, 42



46년생 다시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58년생 절대 순수사람과 인연이 생기나 조심은 절지 마라. 70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류는 없으리라. 82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2, 30



47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59년생 정신이 흔들리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71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83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영전하는 격이나 이상문제는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22, 3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lt;1050&gt;

How would you like to pay?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A : How would you like to pay? Cash or credit card?

B : Credit card.

A : Then you can pay when you check out.

B : All right. When is check out time?

A : Before twelve o'clock. Here is your key, sir. Have a nice stay.

A :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현금? 신용카드?

B : 신용카드요.

A : 그러면 퇴실할 때 지불해도 됩니다.

B : 알았습니다. 퇴실 시간이 언제죠?

A : 12시 이전입니다. 열쇠 여기 있습니다. 편하게 보내세요.

\* How would you like to ~ :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 check out time : 퇴실 시간

\* credit card : 신용카드

\* pay for ~ : ~의 값을 치루다

\* pay by~ : ~으로 돈을 지불하다

## 오하요우 니혼고 &lt;